

# “강사은행제 실시...전문상담사 배출”

## 불교상담개발원 신년계획 발표 원장에 도현 스님 취임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이 제5대 원장으로 도현 스님(서울 정혜사 주지)을 임명하고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를 불교상담을 대표하는 전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상담대학원대학을 세우기 위해 설립된 불교상담개발원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상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불교상담연합회 구성 △강사은행제도 실시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회 구성 △명상 프로그램 필수과목 실시 △대내외 홍보강화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계획했다.

현재 불교상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동국대, 서울불교대학원, 동방불교대, 중앙승가대 등이 있으며 각 단위 사찰 불교교양대학에서도 불교상담학을 전공으로 강의하는 곳들이 있다. 개발원은 각 단위에서 수업을 듣고 심화과정을 원하는 이들에게 전문 자격증을 줄 계획이다.

도현 스님은 “불교상담대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만 시험에 응시해 조계종 포교원에서 인가한 불교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했다. 앞으로는 각 단위의 교육수요자들도 불교상담대학·대학원과 연계해 심화 및 보수교육을 받고 포교원 불교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연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원은 포교원의 지원으로 민간 자격증 인증하는 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조만간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현 스님은 “불교상담사가 민간자격증이 된다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유관 시설과 연계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불교계 복지기관에 전문 상담사들 가운데 타종교인이 많은데 불자 상담자로 대체할 수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이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를 불교상담을 대표하는 전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사진은 불교상담대학·대학원 학생들의 모습. 사진왼쪽은 제5대 불교상담개발원장으로 취임한 도현 스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발원은 강사은행제도를 도입해 불교상담교육을 전문화할 방침이다. 전문 강사진을 구성해 불교상담대학·대학원 수업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개발원은 “불교와 상담론을 연구하는 교수들을 섭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강사은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외부 전문 교수들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교수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원은 불교 상담분야 전문가인 조계종 승려와 신도 등 연구위원 15명을 위촉해 불교상담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자료 발간을 해 나간다.

연구위원은 불교상담심리전문가 선임 스님(말행복지유터장), 상담개발원 이사 광웅 스님(성림사 주지), 헤타 스님(수원지방법원 상담원),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명상의 집 대표), 이규미 교수(아주대 교육대학원), 전현수 원장(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 최훈동 한빛 정신병원장, 김준형 서울사건치료연구소장, 황수경 교수(동국대 선편과), 이경애 소장(이경애심리상담소), 박남수 소장(한국마인트코칭

연구소) 등으로 구성됐다.

도현 스님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월 연구위원들이 모여 토론회도 갖고 포럼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명상 프로그램을 불교상담사 1급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채택했다. 도현 스님은 “불교의진수인 명상 프로그램을 반드시 도입해 현장에서 상담가들이 명상치료도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적·물적지원이 부족했던 개발원은 방송과 신문,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후원금 모집에도 나선다. 또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해 불교상담개발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자살’ ‘우울증’ 등 사회적 이슈를 불교상담을 접목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도현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돼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불교상담대학·대학교가 되길 바란다”며 “포교원, 중앙신도회 등 개발원에 관심을 가져주는 교계 단체 및 불자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제5대 신임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은 법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상담개발원 이사와 자비의전화 이사를 역임했으며,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을 진행했다. 스님은 현재 영등포교도소 교화위원이자 수원지방법원 가사상담위원으로 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1월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이·취임식과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제4대 원장 담교 스님에 이은 제5대 원장 도현 스님의 취임식과 담교 스님에 대한 포교원장 공로패 수여, 신임 이사 및 연구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된다.

2부 기념세미나에서는 ‘불교상담의 근거와 임상적 적용’을 주제로 전현수 신경정신과 원장이 ‘불교상담의 임상적 사례를 중심으로’를, 박찬욱 밝은사람들 연구소장이 ‘불교상담의 성찰,소통,명상을 통한 이고득락’을, 자비의 전화 이사 선임 스님이 ‘불교상담개발원 활동 현황’을 발표한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스키도 타고 친목도 다져요

## 파라미타 1월 27~29일 겨울수련회 실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어)는 1월 27~29일 강원 횡성 웰리힐리파크 유스호스텔에서 ‘제3회 사찰 청소년 겨울수련회’를 실시한다.

수련회는 중·고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스키강습과 수준별 스키타기, 안전교육 등을 비롯해 회원간 친교를 다지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청소년법회 회원과 지도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파라미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7236165@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02)723-6165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청소년들이

흥미와 재미를 갖는 겨울스포츠를 통하여 신심을 단련하고 파라미타 회원들 간의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강원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남)는 1월 11~13일 양양 낙산사에서 동계 캠프 및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의 소중함과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간의 친목을 다지기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캠프에는 강원파라미타 분회인 21개 초중고교 121명의 학생이 참여해 노래배우기와 입재시, 문화재 UCC 영상편집 특강, 걷기명상 등을 진행했다. 이아은 기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스키타기 등을 주요프로그램으로 한 사찰 청소년 겨울수련회를 1월 27~29일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금강대, 무료 티베트어 전문 강좌 개설

## 1월 28일부터 10일간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센터는 1월 28일~2월 7일까지 무료로 티베트어 전문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좌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차상엽·김성철 금강대HK교수가 각각 초급반과 원전강독반을 맡아 강의한다. (041)731-3629 이아은 기자

지난 해 산스크리트어 전문강좌를 개설해 운영한 금강대는 “수강생 수준에 맞춰 단기간 집중 강좌로 초급부터 원전강독에 이르기까지 티베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좌에 참석을 희망하는 이들은 2월6일까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로 접수하면 된다. (기숙사와 식비, 교재비 별도) 이아은 기자

# 포교원, 어린이·청소년 심성개발 지침 보급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어린이, 청소년의 심성개발 지침서를 발간해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지침서는 <어린이 마음거울 108 지침서>와 <청소년 심성개발 프로그램 지침서-청소년 10분 집중명상,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 <월호 스님의 청소년 힐링캠프 가이드북>이다.

2012년 포교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교 애플리케이션 ‘어린이 마음거울 108’ 및 ‘청소년 마음거울 108’을 개발 보급한 바 있다. 이번 지침서는 애플리케

이션을 활용한 지도방법 등을 담은 교사용 지침서 및 교육보조교재다.

<청소년 심성개발 프로그램 지침서>는 2012년 3월에 발족한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인 해겨 스님과 인경 스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월호 스님의 청소년 힐링캠프 가이드북>은 포교원에서 시행한 청소년심성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포교원 인증 프로그램이다.

노덕현 기자

# 금강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 진흥원, 신년대법회 봉행

<금강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열린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은 1월 28일~2월 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대법당 다보원에서 ‘<금강경>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2013년 제1차 신년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 첫 날인 28일 서울 금강선원장 해겨 스님을 시작으로 29일 동국대 명예교수 현각 스님, 30일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

가>의 저자 김윤수 전 판사, 31일 불교방송 ‘행복의 길’ 진행자인 법안 스님, 2월1일 경기도 광주 각하사 주지 혜담 스님 등 5차례 걸쳐 매회 1시간30분씩 법석을 연다.

대한불교진흥원 “신년을 맞아 한국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을 소재로 출제가 법사를 초청해 5일간 연속법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법회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상향적 삶의 정의를 규명하고, 나아가 아집과 독선으로 오염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아은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雲寺

고불총림 백양사 포교사 전문 강원 학인 모집

불교대학 졸업과 포교사고시 합격이후 포교사들의 불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포교사로서의 보다 높은 자질 향상을 위해 2013년 고불총림 백양사에서는 2년 4학기 포교사 전문 강원 학인을 모집합니다.

- 입학 자격
  - 출가승려 : 모든 불교종단의 비구 비구니 중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
  - 포 교 사 : 대한불교조계종의 포교사 자격을 갖춘 우바세 우바이
- 입학 정원
  - 1) 상주형 대중 : 비구 3명, 우바세 20명
  - 2) 통학형 대중 : 50명(비구·비구니·우바세·우바이 통합수업)
- 제출 서류
  - 1) 입방원서(본원의 소정 양식)
  - 2) 포교사고시 합격증 사본 또는 승려증 사본
  - 3)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발급/상주형 대중의 경우)
  - 4) 사진 3장(증명사진)

- 원서 및 서류의 제출 시기 및 장소
  - 1) 원서 및 서류의 제출 시기 : 2월 1일(금) ~ 2월 14일(목)
  - 2) 제출 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고불총림 백양사 포교사 전문 강원 교무처(종무소) 전화 : 061)392-7502 팩스 : 061)392-2081
- 선발 시기 및 방법
  - 1) 입학시험 : 2013년 2월 17일 오후 2시(백양사 교육관)
  - 2) 논술시험 : (논제 - 연기법과 사성제)
  - 3) 면접시험
  - 4) 합격자 발표 : 2013년 2월 19일 백양사 홈페이지에 공고

※ 포교사 전문 강원의 입학전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양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불총림 백양사 포교사 전문 강원 강주 우 궁